

부산지역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실태 조사

오영림 · 김홍열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A Survey of Attitude Toward Sex of College Girls in Busan

Young-Lim Oh · Heung-Yeol Kim

Department of Obstetrics & Gynecology,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Abstract

Objective: This survey aims to analyze unmarried women's attitude toward sex in Busan. We researched sexual experiences, experiences regarding sex education, attitude toward sex, experiences of contraception/contraceptive awareness and use to indicate the direction of the future.

Methods: The respondents were 456 unmarried college girls from 17 to 25 years old. The question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sexual awareness, coitus history and contraception were given to them. The survey were undergone from June to December, 2007.

Result: The age distribution of 456 respondents was 156 (34%) of age 17-19, 257 (56%) of age 20-22 and 40 (9%) of age 23-25, 84% of respondents were christian and it was the most common religion. 4% of respondents were found to have sexual experience. The mean age of first intercourse was 20.4 and the average number of coitus was 20.1 and the average number of sexual partner was 1.53. Among single females aged 17-25, 0.02% were found to have a sex partner currently. They were found to have sexual intercourse 7.3 times per month on average. Most respondents got sex education at educational institutions like middle school (78%) and high school (71%). However, only 11% we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sex education. About a half of respondents got sex history were worried about pregnancy and 59% were found to always use contraceptives. Condom (85%), periodic abstinence (46%), coitus interruptus (31%) and oral contraceptives (8%) were commonly used contraceptive methods.

Conclusion: As unmarried women get older, gradually opened sexually. Therefore, more practical sex education about effective contraception to prevent unwanted pregnancy is necessary according to our survey.

Key words : Sexual attitude, Contraception, Unmarried women

서론

현대는 개방화 국제화의 시대로 생활양식의 영향으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결혼연령이 점차 증가하면서 미혼여성의 혼전 성관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혼여성들의 피임 필요성 인식의 증가와 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의 15~44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피임실천상태를 조사한 연구¹⁾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임실천 및 실태에 대한 조사는 있으나^{2,3)}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혼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시기는 자아를 정립해야 할 성인기 초기로서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건 강한 사회인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세대를 키워낼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또 인공임신중절 경험율을 보면 15~2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1991년을 정점(29%)으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3%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과 2006년 조사에서는 다시 15%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 연구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미혼여성 중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경험여부, 성교육경험, 성의식 상태 및 피임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올바른 효과적인 피임지식교육이나 홍보를 유도해 피임 실천율을 높여 인공임신중절율을 낮추고 사회적인 대응방안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교신저자 : 김 홍 열
주소 : 602-702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34번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산부인과
Tel : 051-990-6463 Fax : 051-244-6939
E-mail : hykyale@yahoo.com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2007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개월 간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수강하는 여학생 456명을 대상으로 저자들이 개발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때 이미 결혼 한 경우는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보조자가 작성자에게 간단한 설명을 한 뒤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성의식 상태 및 피임에 관한 문항으로 나누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연령을 기록하게 하였다.

성경험과 관련된 질문으로 성경험 유무를 물었으며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나이는 언제이며 지금까지 몇 번 정도의 성관계를 경험하였는지, 성관계를 경험한 이성은 몇 명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문항은 먼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몇 번 정도 받아보았으며 성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어디였는지와 만족을 및 이해율을 조사하였다. 성의식 상태에 대한 질문으로는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인지와 성관계를 갖는다면 상대방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서로간의 사랑 없이 성관계가 가능한지와 인공유산이 불가피할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피임에 관한 문항은 우선 피임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피임 경험이 있는 여성에 한해서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했는지, 성관계시 임신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피임방법으로는 경구피임약, 자궁내장치, 콘돔, 낱자 피임법, 질외사정, 난관수술, 정관수술, 응급피임약, 미레나, 살정제, 임플라논으로 나누어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하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성관계시 임신에 대한 걱정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작성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령

조사 대상자는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수강하는 여학생 456명이었으며 연령은 만 17세부터 30세까지였다. 연령 분포는 17-19세가 34% (156명), 20-22세가 56%(254명), 23-25세가 9% (40명), 26-30세가 1%(6명) 이었다. (Table 1).

Table 1. Gena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lassification	Number	%
Religion	Christian	425	93
	Buddhism	2	0
	Catholic	4	1
	Others	25	5
Age (N=456)	17~19	156	34
	20~22	254	56
	23~25	40	9
	26~30	6	1
	Total	456	100

2. 조사 대상자의 성의식 상태

1) 성경험 실태

전체 조사 대상자 456명 중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4% (17명)였다. 연령별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은 17-19세가 6% (1명), 20-22세가 65% (11명), 23-25세가 24% (4명), 25세 이상이 6% (1명) 이었다.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나이는 평균 20.4 세였다. 지금까지 성관계를 가진 횟수는 평균 20회였고, 지금까지 성관계를 가진 이성의 수는 평균 1.53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관계를 갖는 이성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전체 조사 대상자 456명의 0.02%에 해당하는 8명이었고, 성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 47%를 차지하였다. 현재 성관계를 갖는 이성이 있는 경우 평균 성관계회수는 7.3회/개월 이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17명 중 임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Table 2).

Table 2.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of study subjects

Variable	Classification	No	%
Intercourse experience	Yes	17	4
	No	439	96
	Total	456	100
Intercourse experience by age	17~19	1	6
	20~22	11	65
	23~25	4	24
	25~	1	6
	Total	17	100
Number of intercourse up until now	~5	5	29
	6~10	6	35
	11~15	1	6
	16~20	2	12
	21~	3	18
	Total	17	100
Number of intercourse partners	~2	9	53
	3~5	5	29
	6~	1	6
Currently having intercourse partners	Yes	8	47
	No	9	53
Experience of pregnancy	Yes	0	0
	No	17	100
Subtotal		17	100

2) 성교육 실태

전체대상자 456명 중 성교육 경험율은 95% (435명)로 대부분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성교육을 처음 받은 나이는 대부분 16세 이전 이었고, 지금까지 받은 성교육횟수는 절반 정도가(49%) 4-6회라고 대답하였다. 성교육을 받은 435명 중 복수 응답시 중학교 (78%), 고등학교 (71%), 초등학교 (55%), TV 등 대중매체 (27%), 대학교 (17%), 성교육관련기관 (8%), 부모 및 친척 (9%), 의사 및 약사 (1%), 기타 (6%)를 통해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성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겨우 11% (50명)로 보통이거나 (62%), 만족하지 않는다 (27%)라고 대답한 사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하였나는 질문에는 22% (96명)만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9% (38명)는 이해하지 못하였고 69% (301명)는 그저 그렇다고 답하였다 (Table 3).

3) 성의식 상태

(1)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인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혼전순결을 지킬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77% (339명)이었으며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6% (28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0% (8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7-19세 연령군에서는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81% (126명),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 (3

Table 3. Experience of sex education of study subjects

Variable	Classification	No	%
Sex education experience	Yes	435	95
	No	21	5
	Total	456	100
First age of sex education experience	~13	245	56
	14~16	173	40
	17~19	15	3
	20~24	2	0
	Total	435	100
Total number of Sex education	~3	143	33
	4~6	215	49
	7~9	11	3
	9~11	36	8
	12~	30	7
	Total	435	100
Organization of sex education (multiple response)	Middle school	338	78
	High school	308	71
	Elementary school	240	55
	TV or mass media	118	27
	College	75	17
	Sex education related organizations	35	8
	Parents or relatives	39	9
	Doctors or Pharmacists	4	1
Satisfaction of sex education experience	Others	28	6
	Satisfied	50	11
	Normal	268	62
Understanding of sex education	Not Satisfied	117	27
	Well understand	96	22
	Normal	301	69
	Not understand	38	9
	Subtotal	435	100

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17% (27명)였다. 20-22세 연령군에서는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72% (184명),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8% (20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0% (50명)이었다. 23-25세 연령군에서는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65% (26명),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0% (4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5% (10명), 26-30세 연령군에서는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50% (3명),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7% (1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33% (2명)로 조사되었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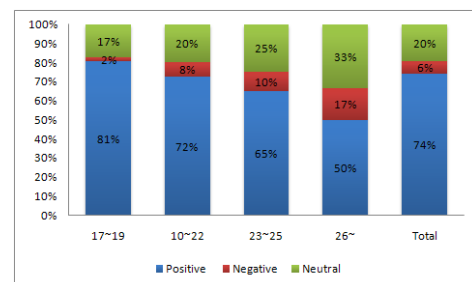


Fig. 1. Attitude toward sex: "I will uphold my virginity till marriage"

(2) 성관계를 가졌으면 상대방과 결혼해야 하는가?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과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45% (205명)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38% (171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가 18% (80명)이었다. 연령별로 17-19세 연령군 에서는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37% (94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40% (101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가 23% (59명)이었다. 20-22세 연령군에서는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37% (94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40% (101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군은 23% (59명)이었다. 23-25세 연령군에서는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53% (21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43% (17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는 5% (2명) 이었다. 26-30세 연령군 에서는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50% (3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17% (1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는 33% (2명) 로 조사되었다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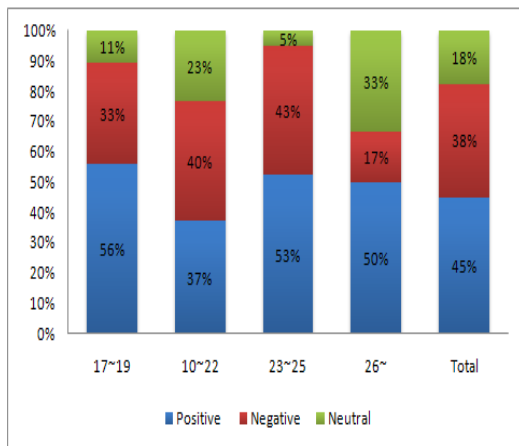


Fig. 2. Attitude toward sex: “Once I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someone, I should marry him.”

(3) 서로간의 사랑 없이 성관계가 가능한가?

사랑 없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17% (77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67% (305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는 16% (7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7-19세 연령군에서 13% (21명), 20-22세 연령군에서 18% (46명), 23-25세가 23% (9명), 26-30세가 25%(1명)로 나이가 많을수록 사랑 없이도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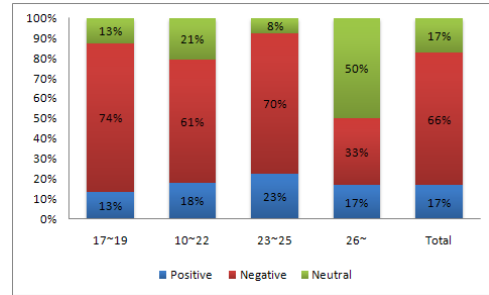


Fig. 3. Attitude toward sex: “I can have sex with someone I do not love.”

(4) 임신하면 인공유산을 하겠는가?

인공유산이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는 16% (75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37% (170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가 46% (211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인공유산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17-19세 연령군이 16% (25명), 20-22세 연령군이 18% (44명), 23-25세 연령군이 11% (5명), 26-30세 연령군이 20% (1명) 로 연령이 많아 질수록 인공유산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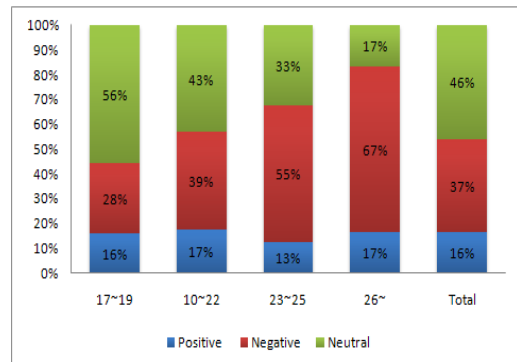


Fig. 4. Attitude toward sex: “I can have an abortion if necessary.”

3. 피임실태

1) 성관계시 피임 실천 여부

성관계한 적이 있는 17명 중 성관계시 반드시 피임을 한다고 답한 경우는 59% (10명)이었고, 피임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고 답한 경우는 18% (3명), 전혀 피임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는 24% (4명)로 나타났다 (Table 4.).

2) 성관계시 임신에 대한 걱정

성관계를 할 경우 임신에 대해 걱정을 한다고 답한 군은 53% (9명)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한 29% (5명)와 모르겠다고 답한 18% (3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4).

Table 4. Experience of contraception: Contraception use and worries of pregnancy

Using contraceptive during sex by age						
	17-19 (%)	20-22 (%)	23-25 (%)	26-30 (%)	Total (%)	
Always	0 (0%)	7 (64%)	2 (50%)	1 (100%)	10 (59%)	
Sometimes	1 (100%)	2 (18%)	0 (0%)	0 (0%)	3 (18%)	
Never	0 (0%)	2 (18%)	2 (50%)	0 (0%)	4 (24%)	
Total	1 (100%)	11 (100%)	4 (100%)	1 (100%)	17(100%)	
Worries of pregnancy with unprotected sex by age						
	17-19 (%)	20-22 (%)	23-25 (%)	26-30 (%)	Total (%)	
Worried	0 (0%)	6 (55%)	2 (50%)	1 (100%)	9 (53%)	
Neutral	1 (100%)	2 (18%)	2 (50%)	0 (0%)	5 (29%)	
Not worried	0 (0%)	3 (27%)	0 (0%)	0 (0%)	3 (18%)	
Total	1 (100%)	11 (100%)	4 (100%)	1 (100%)	17(100%)	

3) 피임방법

피임 경험이 있는 여성 13명이 사용한 피임방법은 복수 응답시 콘돔 85% (11명), 낱짜피임 46% (6명), 질외사정 31% (4명), 경구피임약 8% (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Table 5. Methods of contraception

Method of contraception (n=13), multiple response		
Condom	11	85%
Periodic abstinence	6	46%
Coitus interruptus	4	31%
Oral contraceptives	1	8%
Emergency OCs	0	0%
Spermicide	0	0%
IUD	0	0%
Mirena®	0	0%
None of the above	1	8%

고 찰

서구식 생활양식의 영향에 의한 개방적인 성문화 풍조,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가 미혼여성에게 준 성도덕의 혼란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피임은 여전히 터부시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피임실천율은 반드시 피임을 한다고 답한 경우가 59%, 피임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고 답한 경우가 18%로 나타나, 95% 이상의 피임실천율을 보이는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 같은 유럽선진국들이나 94%의 피임실천율을 보이는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나타난 2006 년도의 피임실천율인 79.6%보다도 낮았으나, 이는 대부분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의 피임실천율이며, 2006년에 서울지역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36% 보다는 높았다.^{1,4-8)}

본 연구에서는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수강하는 만 17-30세의 여성 456명의 조사대상자 중 성교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4%로 나타나 매우 낮은 성 개방율을 보였다. 성관계시 반드시 피임을 한다고 답한 경우가 59%, 피임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고 답한 경우가 18%이었다. 그러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임신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

성교육 경험율은 95%로 대부분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균 5.8회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내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성교육에 대해 만족율 (11%)이나 이해도 (22%)는 현저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낮은 만족도와 이해도는 피임 인식 부족으로 인공유산에 대한 경솔함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관계시 임신에 대해 걱정을 한다고 답한 사람이 53% 밖에 안되고 피임을 항상 하는 사람들 또한 59%로 낮게 나와 피임의 필요성 및 성관계시 임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미흡한 성교육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된다.

우리 나라 여성의 피임실천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1976년 44.2%에서 지속적인 가족계획 사업의 영향으로 2006년에는 79.6%로 높은 수준의 피임 실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이처럼 피임실천율은 높아지고 피임방법도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유산율은 여전히 높은 이유는 아직도 자연주기법이나 질외사정법 같이 피임실패율이 높은 방법으로 피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는 한국 여성들의 피임에 대한 부적절한 교육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피임실패율은 각 보고마다 차이는 있으나 콘돔이 14%, 질외사정이 19%, 낱짜피임이 25%, 경구피임약이 0.1%, 살정제가 26%, 자궁내장치가 0.8%, 미레나가 0.05% 등이다.⁹⁾ 본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피임성공율이 높고 여성 스스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피임법인 경구피임약 (0%)이나 자궁내장치 (0%)보다는 남성에게 의

지하는 콘돔 (85%)이나 질외사정 (31%)을 선호하거나 피임실패율이 높은 낱짜 피임법 (46%)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여러 유럽국가와 미국⁵⁻⁸⁾의 경우 경구피임약이 30%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피임실태 조사에서²⁾ 콘돔 (29.0%)과 경구피임약 (12.2%)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콘돔 (89%)의 사용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미혼여성들에게는 경구피임약이나 자궁내장치가 선풍 다가가기 쉽지 않은 방법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가 456명으로 대상자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으나 1대1 면접을 통한 설문이라 한꺼번에 설문지를 나눠주고 무기명으로 답한 설문이므로 객관성은 있는 설문조사라고 사료되지만 대상군의 특성상 독실한 기독교인이 많은 관계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77%), 그 결과 성경험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4%로 매우 낮게 나와 이 조사만으로는 미혼여성들의 피임실천 및 실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인공유산을 하겠다는 경우는 16%로 2006년에 이임순 등이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의식 실태 조사에 보다(41%) 낮게 나왔으나⁴⁾ 인공유산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는 타 연구 (43%)에 비해 37%로 큰 차이가 없어 피임 실패에 대해 인공유산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여대생들의 성의식 실태를 알아보고자 성경험, 성교육경험, 성의식, 피임에 대한 경험 및 의식 상태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군에서는 성경험율은 낮았지만 성의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개방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피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비효율적인 성교육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 성관계 연령이 나이가 어릴수록 점차 낮아지고 혼전 성관계율이 높아지므로 미혼여성들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피임의 중요성은 여성건강과 직결되고 있

고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불임증 등 차후 임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확한 피임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진우.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2) 이임순, 이윤희, 정집관, 이석민, 이해혁, 이정재. 한국 여성 1,131명의 피임실천 및 실태에 대한 조사. 대한산부회지 45: 960-6, 2002
- 3) 이해남, 변용진. 한국 충주 지역 여성들의 피임실천 및 실태. 대한산부회지 46: 738-45, 2003
- 4) 이임순, 박은희, 이정재. 한국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실태 조사. 대한산부회지 49: 157-67, 2006
- 5) Oddens BJ. Contraceptive use and attitudes in Italy 1993. Human Reproduction 11: 533-9, 1996
- 6) Oddens BJ, Milsom I. Contraceptive practice and attitudes in Sweden 1994. Acta Obstet Gynecol Scand 75: 932-40, 1996
- 7) Oddens BJ, Visser AP, Verner HM, Everaerd WTAM, Lehert P. Contraceptive use and attitudes in great Britain. Contraception 49: 73-86, 1994
- 8) Forrest JD, Fordyce PR. Women's contraception attitudes and use in 1992. Fam plann perspect 25(4): 175-9, 1993
- 9) Hatcher RA, Trussell J, Stewart F, Cates Jr W, Stewart GK, Guest F, et al. Contraceptive Technology. 17th ed. New York: Ardent Media p.409-50, 1998